

영아의 공동주의와 초기 언어발달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Joint Atten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Infancy*

이혜련(Hae-Ryoun Lee)¹⁾

이귀옥(Kwee-Ock Lee)²⁾

이영주(Young-joo Lee)³⁾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relationships between engagement in joint attention and the early language development in infancy. Subjects were 12 infants and their mothers. At 20 and 25 months of age, each child's spontaneous natural speech during interaction with his/her caregiver was videotaped for about 30 minutes. The EJA (Episodes of joint attention) focus between mother and child were identified and coded by Tomasello and Todd's (1983) and Bakeman and Adamson's (1984) including person engagement, object engagement, looking engagement, passive joint attention, coordinated joint attention. Results showed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between within and outside EJA at 20 and 25 months of age; that is, during periods of EJA children talked more inside than outside EJA.

Key Words : 공동주의(joint attention) 초기 언어발달(early language development)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infant-mother interaction).

I. 서론

사람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어이다. 언어는 인간이 발견 혹은 개발한 가장 고차원적인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영아가 출생 후 성인수준의 언어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출생 후 1년이 지나야 첫 단어를 시작하고 유아기말에 이르러야 타인과 상호작용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¹⁾ 경성대학교 강사

²⁾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교수

³⁾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Kwee-Ock Lee, Department of Human Ecology,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Email : klee@ac.kr

언어 사용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언어 이전 시기나 성인수준의 언어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영아기나 유아기 초기에 아동이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언어이전시기에 영아와 양육자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져왔다.

상호작용하는 타인이나 관심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은 중요한 발달의 초석이 된다. 특히 초기 의사소통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적 변화를 의미하는 타인이나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은(Werner & Kaplan, 1963, Bakeman & Adamson(1984)에서 재인용) 영아기 전반에 걸쳐서 서서히 발달한다. 영아기 초기에는 양육자와 또는 대상과의 양자간 상호작용만이 가능하다. 그러다가 점차 영아와 대상 그리고 양육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삼자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삼자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주의(joint attention)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생후 6개월경이 되면 영아들은 양육자에서 대상으로 또는 대상에서 양육자로 눈 마주침이나 주의를 전환할 수 있다(Kaye & Fogel, 1980; Newson & Newson, 1975). 그 후 곧 영아는 물질을 통해 타인(양육자)과 공동 관심사가 되는 사건이나 사물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Leung & Rheingold, 1981; Murphy & Messer, 1977). 그러다가 13개월경에 이르면 영아가 타인(주로 양육자)과 어떤 공동 관심사인 대상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견고해져서(Bates, 1979; Harding & Golinkoff, 1979) 어느 정도의 공동주의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주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Butterworth(1991)은 단순히 두 사람이 어떤 대상을 함께 바라보는 행동 즉, 영아가 타인이 보는 대상을 같이 보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Tomasello(1995; Tomasello & Todd, 1983)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공동의 대상을 집중하여 보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Tomasello와 Todd(1983)에 따르면 공동주의란 적어도 3초 동안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맞춤이나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이용하여 주의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주의상태를 상호작용의 정도로 비참여, 쳐다보기, 사람, 사물, 수동적 공동주의, 협응적 참여 등의 6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Bakeman & Adamson, 1984). 협응적 참여(cooperated joint)는 영아가 적극적으로 특정 대상과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이 최소 3초 이상 지속되며, 타인에 대해 영아의 분명한 행동이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응적 참여 즉 협응적 공동주의는 영아가 타인과 공동의 관심대상에 함께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13개월경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18개월경에 이르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정윤경 · 광금주 · 성현란 · 심희옥 · 장유경, 2005; Bakeman & Adamson, 1984). 그러므로 18개월경에 이르러야 진정한 의미의 공동주의가 영아의 중요한 상호작용 방식이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 공동주의가 이후 아동의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그리고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면서(Carpenter et al, 1998; Morales, Mundt, Delgado, Yale, Neal, & Schwartz, 2000; Mundy & Gomes, 1998; Tomasello & Farra, 1986) 영아기의 공동주의에 관한 관심이 급속

도로 증대되고 있다. 공동주의(joint attention episodes)란 양육자와 영아가 동일한 사물이나 사건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는 상호작용으로서, 언어이전 시기에 양육자와 영아가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특히 이후 아동의 언어발달과 중요한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다(Dunham, Dunham, & Curwin, 1993; Tomasello & Todd, 1983; Tomasello & Farrar, 1986; Tomasello, Mannle, & Kruger, 1986). 이러한 관련성은 영아가 12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한 달 간격으로 6개월 동안 영아와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을 녹화하여 분석한 연구(Tomasello & Todd, 1983)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6개월 동안 공동주의 상황의 양이 18개월일 때의 영아의 어휘량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후속 연구에서 영아가 15개월일 때 양육자와의 공동주의가 영아가 21개월이 되었을 때의 어휘량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도 밝혀졌다(Tomasello & Farrar, 1986). 이러한 관련성은 쌍생아 연구(Tomasello et al, 1986)에서도 보고되었다. 쌍생아들은 종종 언어발달이 지연되는데 여기에 어머니와의 공동주의 시간이 관련된다는 것이다. 즉 쌍생아의 어머니는 절대적인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쌍생아가 아닌 경우보다 영아 한 명과의 공동주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것이 영아의 언어발달의 지연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최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의와 언어발달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언어이전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약 20개월 이하의 어린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자와의 공동주의와 이후 언어발달의 관련성을 탐색하여왔다. 또한, 공동주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호작용 정도가 다르므로 어떤 유형의 공동주의 상황인지에 따라 공동주의 정도가 다르고, 언

어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월령에 따라 상호작용정도가 다르고 주의정도도 다르다는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응적 공동주의가 매우 빈번한 상호작용 방식이라고 보고된 18개월 이상의 영아들에서도 양육자와 영아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공동주의가 여전히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인지, 이러한 후기 영아기의 공동주의가 이후 언어발달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18개월이 넘은 영아들의 경우에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공동주의 하위범주에 차이가 있는지, 공동주의 하위범주 중 언어발달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개월 이상 영아들을 대상으로 영아들의 월령이 평균 20개월일 때와 평균 25개월일 때의 공동주의를 분석하여 공동주의와 언어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공동주의의 내(inside joint attention)와 그 외 상호작용(outside joint attention)의 언어발달정도를 비교하고, 공동주의 하위범주와 아동의 언어발달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월령에 따라 공동주의 내와 그 외 상호작용 간에 언어발달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공동주의 하위범주와 영아의 언어발달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20개월인 영아 12명

〈표 1〉 대상아동의 시기별 연령(개월)

	대상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1차	12	20(.01)	18~21
2차	12	25(.00)	24~25

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약 5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영아와 양육자(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하였다. 진정한 공동주의라 할 수 있는 협응적 공동주의는 생후 13개월 이후에야 가능해지고 협응적 공동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매우 빈번해지는 것은 생후 18개월경(정윤경 외, 2005; Bakeman & Adamson, 1984)이므로 협응적 공동주의가 빈번한 18개월-21개월 범위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영아들의 시기별 연령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12명의 영아와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영아가 평균 20개월일 때와 평균 25개월일 때의 총 2회에 걸쳐 자유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과정을 약 30분 동안 녹화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일한 장난감을 세팅하고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장난감은 영아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것으로서 유선 전화기 1대, 무선전화기 1개, 아기인형, 우유병, 비행기 1대, 자동차 2대, 플라스틱 동물 시리즈(동물 2마리, 공룡 1마리), 호랑이 형깁인형, 소꿉놀이(가스렌지, 접시, 컵, 포크, 숟가락, 주전자, 냄비, 프라이팬) 등을 준비하였다. 영아와 양육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면 반갑게 인사하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양육자에게 영아와 양육자가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그런 다음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과정을 녹화하고 녹화 후 바로 전사하였다.

이 자료를 Tomasello와 Todd의 코딩체계(Tomasello & Todd, 1983)에 따라 영아와 어머니가 최소 3초 이상 동시에 동일한 사물에 주의를 집중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공동주의 에피소드(Joint attentional episodes)로 정의하였고, 공동주의 상황이 아닌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그 외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영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양육자가 함께 참여할 때와 양육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영아가 참여할 때를 비교했을 때, 영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양육자가 함께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이 영아의 주의 집중을 더욱 오래 지속시킬 수 있고 상호작용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Bruner, 1982; Ratner & Bruner, 1978), 영아가 이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의 이름을 더 쉽게 학습하고 언어발달이 촉진되므로(Dela Corte, Benedict, & Klein, 1983; Nelson, 1973; Roth, 1985; Tomasello & Farrar, 1986),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양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주의 상황만을 공동주의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공동주의상황을 Bakeman과 Adamson (1984)의 상호작용 하위범주를 이용하여 5가지 하위범주인 쳐다보기, 사람, 사물, 수동적 참여, 협동적 참여로 나누었는데, Bakeman과 Adamson의 하위범주 중 비참여는 두 사람이 함께 주의에 참여하거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공동주의 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영아가 어떤 활동을 관찰하지만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상호작용(쳐다보기), 영아가 단순하게 양육자와의 접촉만 시도하는 상호작용(사람), 영아가 장난감 등을 손에 가지고 사물로만 놀이를 하는 상호작

용(사물), 영아와 양육자가 능동적으로 같은 사물에 관여하지만 양아가 양육자의 참여를 거의 눈치 채지 못하거나 옆에 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수동적 상호작용), 그리고 영아가 적극적으로 사물과 사람(양육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참여하는 것으로 영아가 양육자에 대해 분명한 행동을 보이는 상호작용(협동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

영아의 기본적인 언어발달을 알아보기 위하여 KCLA(배소영, 2000)에 따라 총발화량, MLU(평균형태소길이), 낱말유형수, 낱말빈도수 등을 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20개월과 25개월 각각에서 양육자와 영아의 공동주의 상황과 그 하위범주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아동의 공동주의 내와 그 외 상호작용간과 연령에 따라 언어발달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공동주의 내, 그 외 상호작용)×2(연령)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공동주의와 아동의 언어발달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기별로 어머니의 공동주의 하위범주와 아동의 언어발달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먼저 시기별로 공동주의 내와 공동주의 외에 언어발달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주의 내와 그 외 상호작용 간에 총발화수($F(1, 10)=41.52, p<.05$), MLU($F(1, 10)=8.24, p<.05$), 낱말유형수($F(1, 10)=22.16, p<.05$), 낱말 빈도수($F(1, 10)=27.24, p<.05$)에 있어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가 양육자와의 공동주의 상황에서 말을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의 상황에서 양아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 외 상호작용에서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문법적이고 더 다양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기별로 보면, 낱말 유형수($F(1, 10)=3.43, p>.05$)와 낱말빈도수($F(1, 10)=3.03, p>.05$)에 있어서는 1차와 2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총발화수($F(1, 10)=93.98, p<.05$)와 MLU($F(1, 10)=11.67,$

<표 2> 시기별 공동주의 내와 그 외 상호작용에서의 언어발달수준

언어발달		1차(20개월)	2차(25개월)	F
총발화수	공동주의 내	75.33(37.23)	1110.67(64.87)	41.51*
	그 외 상호작용	31.33(19.52)	28.75(13.43)	
MLU	공동주의 내	1.65(.73)	2.88(1.01)	8.24*
	그 외 상호작용	1.50(.57)	2.35(.72)	
낱말유형수	공동주의 내	29.25(14.05)	53.42(36.38)	22.16*
	그 외 상호작용	16.75(11.70)	18.16(10.02)	
낱말빈도수	공동주의 내	88.00(58.90)	175.50(134.20)	27.24*
	그 외 상호작용	43.91(31.74)	49.91(31.74)	

$p<.05$)는 20개월일 때보다 25개월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의 기본적인 수준은 총발화수와 MLU에서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개월일 때보다 25개월일 때에 발화수가 더 많고 MLU도 더 높다는 것은 20개월보다 25개월일 때 언어발달이 좀더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낱말유형수나 낱말 빈도수에서 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20개월일 때와 25개월일 때에 동일한 장난감 세팅을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주의 하위범주와 영아의 언어발달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시기별로 공동주의 하위범주의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공동주의 하위범주들간에 시기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test를 실시하였으나 대응표본 t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특성상 대상수가 적고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빈도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것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빈도의 평균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개월일 때와 25개월일 때 공동주의 하위범주의 빈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의 하위범주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진정한 공동주의라 할 수 있는 협응적 참여 정도를 보면 20개월이나 25개월 모두에서 다른 하위 범주들보다 명백하게 그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개월일 때보다 25개월일 때 그 빈도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후 2년경에는 타인과의 진정한 공동주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에

<표 3> 공동주의 하위범주의 시기별 빈도 평균(표준편차)

	시기	평균(표준편차)	t
쳐다보기	1차(20개월)	.42(.67)	1.39
	2차(25개월)	.17(.38)	
사람	1차(20개월)	.00(.00)	-
	2차(25개월)	.00(.00)	
사물	1차(20개월)	1.67(1.78)	.84
	2차(25개월)	1.08(1.00)	
수동적참여	1차(20개월)	1.67(1.37)	.86
	2차(25개월)	1.25(1.14)	
협응적참여	1차(20개월)	7.57(4.68)	-1.59
	2차(25개월)	11.00(6.53)	

<표 4> 20개월일 때 공동주의 내에서의 영아의 언어수준과 공동주의 하위범주와의 관계

	공동주의 내에서의 영아 언어발달수준				
	발화수	MLU	낱말유형수	낱말빈도수	
공동주의 하위범주	쳐다보기	.02	-.30	-.26	-.11
	사람	.25	-.00	.45	.20
	사물	-.17	-.32	-.31	-.29
	수동적 참여	-.16	-.51	-.40	-.41
	협응적 참여	.72*	.03	.56	.49

* $p<.05$

서 협응적 참여를 주로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영아들은 자유놀이 상황에서 양육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는 그 빈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물(예 : 장난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빈도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 그러나 20개월과 25개월일 때를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사물) 양육자의 참여를 인지하지는 못하면서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호작용(수동적 참여) 모두 감소하여 사물에 집중하는 상호작용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의 하위범주와 언어발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20개월일 때 공동주의 하위범주들과 언어발달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영아가 20개월일 때 공동주의 하위범주 중 협응적 참여와 영아의 총발화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의 상황에 서도 주의를 집중하면서 협응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때 영아가 말을 많이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아가 25개월일 때 공동주의 하위범주와 영아의 언어수준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영아가 25개월이 되었을 때 공동주의 하위범주 중 협응적 참여와 영아의 총발화수, MLU, 낱말유형수, 낱말빈도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영아와 양육자가 협응적 참여 상황일 때 영아가 말을 많이 하고, 문법적으로 발달된 언어를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도 나타났듯이 영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

울이고 영아가 타인에 대해 분명하게 행동을 취하는 협응적 참여와 언어 발달 간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개월일 때와 25개월일 때 모두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상황에서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협응적 참여가 많을수록 언어발달의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언어이전시기에 영아와 양육자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져왔고, 그 결과 영아와 양육자가 함께 어떤 공동의 관심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상황, 즉 공동주의가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Tomasello & Todd, 1983; Tomasello & Farrar, 1986; Tomasello, Mannle, & Kruger, 1986)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언어이전시기에 영아와 양육자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로 18개월 이전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주의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왔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주의라 할 수 있는 협응적 공동주의가 빈번한 시기가 18개월 이후(정운경 외, 2005)라는 점과 영아기 후기에 이르러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공동주의가 언어이전시기에만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균 20개월인 영아들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여 공동주의와 이후 언어발달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8-21개월

<표 5> 25개월일 때 공동주의 내에서의 영아의 공동주의발화와 공동주의 하위범주의 관계

	공동주의 내에서의 영아 언어발달수준			
	발화수	MLU	낱말 유형수	낱말 빈도수
처다보기	.13	.15	.19	.15
사람	-	-	-	-
사물	-	-	-	-
수동적 참여	-.14	-.31	-.13	-.23
협응적 참여	.80*	.62*	.80*	.82*

* $p < .05$

영아 12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과정을 녹화하였고, 약 5개월 후 같은 환경 하에서 상호작용과정을 녹화 분석하여 공동주의상황에서와 그 외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언어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공동주의의 하위범주들과 언어발달간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먼저, 영아의 공동주의 내와 그 외 상호작용 간에, 그리고 연령변화(20개월일 때와 25개월일 때)에 따라 언어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연령)×2(공동주의 내, 그 외 상호작용)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발화수, MLU, 낱말유형수와 낱말빈도수 모두에서 공동주의 내와 그 외 상호작용에서 차이가 나타나 공동주의 상황에서 그 외의 상호작용 상황에서도 총발화수가 더 많고, MLU가 더 높았으며, 낱말유형수와 낱말빈도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발화수와 MLU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20개월일 때보다 25개월일 때에 MLU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주의 상황에서 영아가 더 많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수준 높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주의상황이 언어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들(Dunham et al, 1993; Tomasello & Farrar, 1986; Tomasello & Todd, 1983; Roth, 1985; Tomasello et al, 1986)을 지지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omasello와 Farra(1986)도 15개월과 21개월경에 영아와 어머니의 공동주의와 언어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두 시기 모두 영아들은 공동주의 상황에서 어머니와 말을 더 많이 하였고, 대화의 길이도 더 길었으며 공동주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 관련된 새로운 단어를 더 잘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주의 상황에서도 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공

동주의 상황이외의 상호작용에서도 언어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공동주의 상황이 언어발달의 원인으로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동주의 상황이 영아와 타인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도록 작용하여 영아들의 언어이전시기에서 언어기로의 발달에 관련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8개월 이후의 영아들의 경우에도 공동주의 상황에서 그 외 상호작용 상황에서도 총발화량, MLU, 낱말유형수 등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언어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후기 영아기나 초기 유아기 공동주의는 양육자와의 중요한 상호작용 유형이며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낱말유형수나 낱말빈도수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절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영아와 양육자의 상호작용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장난감 자유놀이 상황을 절차로 사용하였는데 이때 1차(20개월)와 2차(25개월)에 동일한 장난감을 구성하였다. 이로 인해 영아들의 놀이상황이 제한될 수 있고,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한 놀이상황이므로 사용하는 낱말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언어발달 과정에서 언어발달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MLU 즉 평균형태소길이(조명한, 1982; Brown, 1973)에서 공동주의 내와 그 외 상호작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차(20개월) 때에는 공동주의 내(MLU=1.65)에서나 그 외 상호작용(MLU=1.50)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2차(25개월)에서는 공동주의 내(MLU=2.88)와 그 외 상호작용에서의 MLU(MLU=2.35)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형태소길이 즉 MLU는

Brown(19730)의 기준에 따르면 MLU 2.35는 단계II에 속하고 MLU 2.88은 단계III에 속하여 1차(25개월)일 때 영아들의 경우에 특히 공동주의 상황에서 문법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발화를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2차(25개월)의 영아들인 경우에도 공동주의가 언어발달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주의 하위범주와 영아의 언어 발달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1차(20개월)와 2차(25개월) 모두에서 협응적 참여가 영아의 언어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응적 공동주의가 진정한 공동주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정윤경 등, 2005; Bakeman & Adamson, 1984)이며 공동주의 상황 중에서도 특히 협응적 공동주의가 언어발달과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공동주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어떤 공통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의 대상에 관련된 행동을 함께 하며 영아가 자신의 관심대상에 타인이 주의를 함께 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상황이 언어발달에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좀 더 어린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Tomasello와 Farra(1985)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무의미한 시선맞춤이나 응시보다는 협응적 공동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응적 공동주의 상황에서 영아에게 적절한 언어적 자극을 가하는 것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협응적 참여 상황에서는 영아의 발화량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양육자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므로 상호작용하는 양육자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때, 양육자는 영아의 언어를 수정해 주고, 영아의 언어발달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영아의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연령인 2세 후반경의 영아들은 양육자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양육자들이 언어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응적 참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좀더 주의 깊은 노력을 한다면 영아들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언어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2세말 경에서 3세 초반에도 언어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시 공동주의가 영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하고, 특히 협응적 공동주의가 언어발달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양육자는 영아의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공동주의 상황을 유도하고, 특히 협응적 공동주의 상황을 영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의와 언어발달간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으나 언어발달이나 공동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것이므로 여러 가지 관련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좀더 명확한 관계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배소영(2000). **한국어발화분석2.0(KCLA2.0)**. 서울 : 학지사.
- 정윤경 · 광금주(2005). 영아기 공동주의 발달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 어머니와 자유놀이에서의 주의 상태와 가리키기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8(1), 137-154.
- 정윤경 · 광금주 · 성현란 · 심희옥 · 장유경(2005).

- 영아의 타인의 주의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협응적 공동 주의와의 관계: 선별적 응시 모방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65-180.
- 조병한(1984). *한국아동의 언어획득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Bakeman, R., & Adamson, L. B. (1984). Coordinating attention to people and objects in mother-infant and pe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5, 1278-1289.
- Bates, E. (1979). *The emergence of symbols: Cognition and communication in infancy*. New York: Academic Press.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e, W. C. (2004). *The origins of joint attention: Relations between social knowledge, social responsiveness, and attentional control*.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 Bruner, J. (1982). The organization of action and the nature of the adult-infant transaction. In E. Z. Tronick(Ed.). *Social interchange in infancy: Affect, cognition, and communication*. Baltimore: University Park.
- Butterworth, G. (1991). The ontogeny and phylogeny of joint visual attention. In A. Whiten(Eds.), *Natural theories of mind: Evolution, development and simulation of everyday mindreading*(pp.223-232). Cambridge, MA: Blackwell.
- Carpenter, G., Nagell, K., & Tomasello, M. (1998). Social cognition, joint attention,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from 9 to 15 months of ag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3(4).
- Dela Corta, M., Benedict, H., & Klein, D. (1983). The relationship of pragmatic dimensions of mothers' speech to the referential-expressive distinc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10, 35-44.
- Dunham, P., Dunham, F., & Curwin, A. (1993). Joint-attentional states and lexical acquisition at 18 month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827-831.
- Harding, C., & Golinkoff, R. (1979). The origins of intentional vocalization in prelinguistic infants. *Child Development*, 50, 33-40.
- Kaye, K., & Fogel, A. (1980). The Temporal structure of face-to-face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454-464.
- Leung, E., Rheingold, H. (1981). Development of pointing as a social gestur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15-220.
- Morales, M., Mundy, P., Delgado, C., Yale, M., Neal, R., & Schwartz, H. (2000). Following the direction of gaze and language development in 6-month-old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1(2), 373-377.
- Mundy, P., & Gomes, A. (1998). Individual differences in joint attention skill development in the second year.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1(3), 469-482.
- Murphy, C., & Messer, D. (1977). Mothers, infants, and pointing: A study of gesture. In H. R. Schaffer (Ed.), *Studies in mother-infant interaction*. London: Academic Press, 1977.
- Nelson, K.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1-2, Serial No.149).
- Newson, J., & Newson, E. (1975). Intersubjectivity and the transmission of culture.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8, 437-445.
- Ratner, N., & Bruner, J. (1978). Games, social exchange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Journal of Child Language*, 5, 391-401.
- Roth, P. (1985). *Timing and function of maternal speech to 12-month-old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Tomasello, M. (1995). Joint attention as social cognition. In C. Moore & P. J. Dunham(Eds.), *Joint attention* :

Its origins and role in development(pp.103-130, Hillsdale, NJ : Erlbaum.

Tomasello, M., & Farra, M, J. (1986).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Child Development*, 57, 1454-1463.
Tomasello, M., Mannle, S., & Kruger, A. (1986). The

linguistic environment of one to two year old twi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69-176.

Tomasello, M., & Todd, J. (1983). Joint attention and lexical acquisition style. *First Language*, 4, 197-212.

2007년 2월 28일 투고 : 2007년 9월 16일 채택